

이방인이 본 '동양 여성' 이야기



어서와, 이런...
E.B. 폴라드 지음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으로는 '양성평등'의 사회이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최근 뉴스를 봐도 여성들은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단지 어떤 여성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거나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무지와 남녀차별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여성 차별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조지타운대학 교수였던 E. B. 폴라드가 펴낸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는 대부분 남성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이 책에선 동양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명한다. 기원전에서 역사 초기 시대,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여성들의 삶을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서다. 서양의 남성 지식인의 눈에 비친 동양 역사속의 여성들은 편견과 차별의 대명사였다.

중국의 전족과 관련된 유래만 봐도 그렇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인기

가 많은 여제의 내반족(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굽은 발)을 흉보지 못하도록 전족의 풍습이 생겼다는 설이 있고, 한편으로 연약한 발을 선호해 이를 모방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다. 또는 남편들이 어린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강제로 전족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전족이 중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풍습이지만 서양인의 눈에겐 차별이나 인종차별의 요소로 보였을 것 같다.

조선의 여성들도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과부가 된 조선의 여성들은 극도로 가혹한 삶을 살아야 했다. 재혼은 거의 불가능했던 탓에 욕정과 폭력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러 정절을 지키기로 한 과부들이 자신들의 덕목이 위태로울 때는 자결을 택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의 상대적 지위는 문화 수준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를 동양의 역사 속에 대입해보면 그 결과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뛰어난 여성들뿐만 아니라, 풍습과 관례는 골레 속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보통의 여성들, 모두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듯 잘 몰랐던 어느 부족의 여성들이 이렇듯 오묘한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척박한 삶은 우리 앞에 살다간 조선 여인들의 삶과 어딘가 모르게 닮은 구석이 있다. 이들의 발견을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여성들이 서 있는 삶의 토대가 되었다."

〈책 읽는 귀족 2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정체성 상실한 난민같은 존재들의 삶



피에로들의 집
윤대녕 지음

작가 윤대녕이 신작 장편 '피에로들의 집'을 펴냈다. 그동안 풍부한 상징과 시적인 문체로 존재의 구원 가능성을 탐색해 온 작가는 본연의 얼굴을 잃은 채 현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소설은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기간 '문학동네'에 연재됐던 작품으로 당시 제목은 '피에로들의 밤'이었다. 11년 만의 장편에서 작가는 거트된 표정, 다시 말해 정체성을 잃어버린 난민 같은 존재들의 삶을 주목한다. '피에로'는 말 그대로 연극이나 서커스에 등장하는 어릿광대를 일컫는다.

실패한 연극배우이자 극작가인 김명우가 '아몬드나무 하우스'로 입주하면서 피에로들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여기에는 수년의 현대사를 외롭게 통과해온 '마미'(어머니로서의 의미)와 그녀의 조카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위태롭게 살아가는 김현주, 기득권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살아왔던 박운정 등 다양한 인물들이 거주한다.

혈연이나 제도가 아닌 오로지 상처의 유대만으로 세워진 이 집에선 눈에 띄는 공통점은 '돌아온다'는 행위다. 밖에서 헤매던 이들은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듯 '피에로들의 집'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장기간 디테일한 묘사를 펼쳐 보인다. '아몬드나무 하우스'의 내부와 이를 둘러싼 주위 모습이 세밀한 풍경화처럼 그려진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근대 유럽을 뒤흔든 음탕·발칙한 문화사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린 힌트 지음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린 힌트 지음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은 불온하다. 그럴 만도 하다. 사전적 의미의 포르노그래피는 "인간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욕을 자극하는 책, 영화, 사진, 그림 따위"를 일컫는다.

현대사회에서 포르노그래피는 검열의 대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포르노그래피의 출현은 서양의 근대성이 태동하는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은 음란서적이 급증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이후 포르노그래피의 발달과 함께 자유시장, 계몽주의, 유토피아 철학 등이 발전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영국에서는 금지되어야 할 음란물 의미로 규정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심리적 최음제였는데 말이다. 영국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까지 은밀한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했다.

지금까지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미국은 1966년 국가적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실증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결론은 놀라웠다. "성에 대한 흥미는 극히 당

연한 것으로 건강에도 이롭다."

물론 포르노가 유해하다는 보고도 없지 않았다. 레이건 정부는 유해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즈위원회를 구성했고, 유해하다는 '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이로움과 유해를 떠나 포르노는 원래는 다 같이 즐기던 것이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성적 호기심은 본능에 가까웠다.

포르노그래피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다룬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UCLA에서 유럽 근대사를 가르치는 린 힌트가 펴낸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은 한마디로 매력적이고 이색적이다. 뉴욕타임스의 "강렬하게 지적이고 도발적인 컬렉션"이라는 평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포르노그래피의 개념은 고대도시 폼페이 유적 발굴과 관련 있다. 기원전 번성했던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묻히고 만다. 처음 발굴될 때는 대단히 인기 있는 뉴스였지만 점차 음란한 벽화나 장식품이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1819년 나폴리의 왕 프란시스코는 폼페이 유물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인 남자"만 허가를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초의 근대적 포르노그래피의 작품으로 16세기에 등장한 이탈리아 작가 피에트로 아레티노의 작품을 든다. 그의 산문 '대화'와 소네트 형식인 '음란한 소네트'가 17세기 포르노그래피 산문의 원형이 되었다는 견해다. 아레티노는 연장자인 경험 많은 여성과 그보다 어린 순진한 여성 사이의 사실적인 대화로 성욕을 개설했다. 또한 그의 '음란한 소네트'는 판화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에로틱한 판화들에 실증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결론은 놀라웠다. "성에 대한 흥미는 극히 당

당시 판화는 교황의 명령으로 공개가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외설스러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등장했다. 사진은 요야기 브테비엘작 '신들에게 들킨 마르스와 비너스'.

금지돼 있었지만, 아레티노의 소네트로 인해 판화에 그려진 16가지 섹스 체위가 알려지게 된다. 이후 아레티노의 베네치아 작업실에서 시작된 포르노그래피 창작 열기는 삼시간에 유럽으로 퍼진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포르노그래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일테면 정치적인 함수와 연관시켜 본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이후 마리 앙투아네트와 궁정 주요 인물들을 공격

하는 팸플릿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만 활용된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왕당파 측에서 혁명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포르노그래피 장치를 이용했다. 이는 포르노그래피가 민주주의적 선전 전술뿐 아니라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지닌 비판의 무기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마·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지구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과정 한눈에 조망



숨쉬는 것들의 역사
이지유 지음

지구상에 나타난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 단세포는 어떻게 복잡한 동식물이 되었을까?

그동안 '별뿔별 아줌마' 시리즈 등 과학 교양서로 이름을 알려온 이지유 작가가 펴낸 '숨쉬는 것들의 역사'는 지구 생물계를 한눈에 조망한다.

저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생명 탄생의 원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식물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한마디로 책은 생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과학 교양서다. 특히 저자는 과학 하면 겁부터 먹는 독자들을 위해 직접 호주 사막을 다녀온 여행기와 집 근처에서 만난 동식물 관찰기도 들려준다.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이끼, 소나무, 단풍나무, 고양이 등을 활용해 동식물의 진화과정도 쉽게 설명한다. 과학이 일상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기회 불평등이 가난한 아이들 운명에 미치는 영향



우리 아이들
로버트 D 페르티트 지음

"가난한 아이들의 운명은 우리의 경제, 민주주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다."

'나 홀로 불랑'의 저자 로버트 D. 페르티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추적한 책 '우리 아이들은' 기회의 불평등, 이웃

공동체의 몰락이 '우리 아이들'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생하고 섬뜩한 보고서다.

저자는 포틀랜드에서 미 지역 방방 곳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의 가정과 아이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최신 사회과학적, 뇌과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들이 처한 현실을 엄밀하게 분석했다.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흙수저'라는 단어의 유행처럼, 우리 사회의 이야기도 하기 때문이다.

〈페이퍼로드·2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8~45세</p> <p>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업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은행 B1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신제품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NAVER 주소: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